

복음을 막아설 수는 없어요!



- 나레이션** 안디옥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던 최초의 사람들이었습니다.
- 행인** 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야!
- 나레이션** 어느 날, 성도들이 금식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,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
- 성령님**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. 두 사람은 나를 위해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.
- 성도1** 바울목사님하고 바나바목사님이 나가시면 우리는 어떡하지?
- 성도2** 목사님 두분 다 안 계시는 건 상상도 못해봤는데...
- 바나바** 우리의 생각대로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시다.
- 바울** 예.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니,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깁시다.
- 나레이션** 그 후,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멀리멀리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기도 하고 며칠씩 걷기도 하면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. 그렇게 멀리멀리 가다가 바울목사님 일행은 구브로!라는 섬에 도착해서 바보!라는 지역에 들르게 되었습니다.
- 바울** 여기가 바로 바보로군요!
- 바나바** 저 바보 아닌데요.
- 바울**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가 바보라는 말입니다.
- 바나바** 글썄. 저 바보 아니라니까요.
- 바울** 아잇 바보... 내 말은 이 지역이 바보라구요.
- 바나바** 하.. 답답해. 저는 바보가 아니라고요..
- 나레이션** 바울목사님 일행은 그곳을 다스리는 총독인 서기오-바울을 만나게 되었고, 총독에게 복음을 자세하게 알려주게 되었습니다. 총독 서기오-바울에게는 바예수라고 하는 시종이 한 명 있었는데, 바예수는 거짓 마술사였기 때문에, 총독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을 몹시 싫어했습니다.
- 바예수** 너무 싫어~! 너무 싫어~! 저 녀석들이 뭘데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건데? 아 그럼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으면 안 되는데... 아 싫어~
- 사람들** 이제 바예수한테 가지 않아도 돼! / 진리의 말씀은 여기에 있었구만. / 바예수는 가짜였어~
- 바예수** 아 이러다간 나 완전 망하게 생겼잖아? 그래, 총독이 복음을 들어선 안 돼! 방해할거야~!!
- 나레이션** 그래서 바예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울과 바나바 일행을 방해했습니다.
- 바예수** 총독님! 저들은 순전히 거짓말쟁이입니다. 절대로 저들의 말을 들어선 안 됩니다! 총독님, 저들을 이 섬에서 쫓아내 버리십시오!
- 나레이션** 그때 바울목사님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어요. 그리고는 바예수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.



바울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이로다!! 주님의 길을 구부러지게 하다니~!! 이제 주님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

바예수 흥! 그러시든가요 메~롱!! 누가 무서워할 줄 알고! 근데 누가 불을 끈 거야! 당장 켜지 못해?! 어... 어..? 아.. 앞이 안 보여.. 어..어떻게 이런 일이... 총독님!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!

나래이션 바울 목사님의 말이 떨어지자, 바예수는 즉시 앞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. 이 광경을 처음부터 보고 있던 총독 서기오-바울은 크게 놀라며 이 일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.

서기오 바울 아.. 정말.. 이들이 전하는 하나님이 정말. 정말정말.. 정말정말정말... 하나님이시구나...

나래이션 이렇게,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자 바울목사님 일행은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 더 잘 전할 수 있었고, 서기오-바울 총독도 바울목사님의 가르침에 깊이 감동되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.

서기오 바울 정말. 정말정말.. 정말정말정말...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. 정말.

바예수 아~! 하나님을 방해하면 절대 안 되는구나~!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! 까불면 다치는 거였어~